

2026
여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함께 하는...

함께, 오월..



01	2026 여름호 인사말
02	5·18이모저모 소식
06	5월 이슈&사건
09	특집 :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5	오월 문화예술 산책
19	추모의 글 남기기 봉사활동 소감문
20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기부금 안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인사말

2026년 여름

"함께, 오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함께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깊어가는 이 시기에도 오월의 가치는 우리 곁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5·18은 특정한 기념일에만 기억되는 역사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오늘의 가치이자 미래세대에게 이어가야 할 우리의 자산입니다.

지난 5월 우리는 다양한 추모와 기념행사를 통해 오월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탱크데이, 5·18왜곡, 혐오 논란 등 5·18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향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고히 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5·18정신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이며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모일 때 더욱 굳건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앞으로도 진실을 기억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정진하며 유가족의 권익 증진과 역사 왜곡 방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 문화사업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여름호에는 유족회의 주요 활동과 기념사업, 문화 소식, 그리고 오월 정신을 이어가는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소식지와 함께 오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상에서 함께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양재혁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이모저모 소식

01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추모식

1981년부터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주관으로 이어져 온 추모식이 5월 17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엄숙하게 거행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명의의 근조화환이 헌화되어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양재혁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이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며,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5·18정신은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력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추모사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영령들께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빈손으로 찾아뵙게 되어 참으로 송구하고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4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픔을 견디며 오월의 진실과 정의를 지켜온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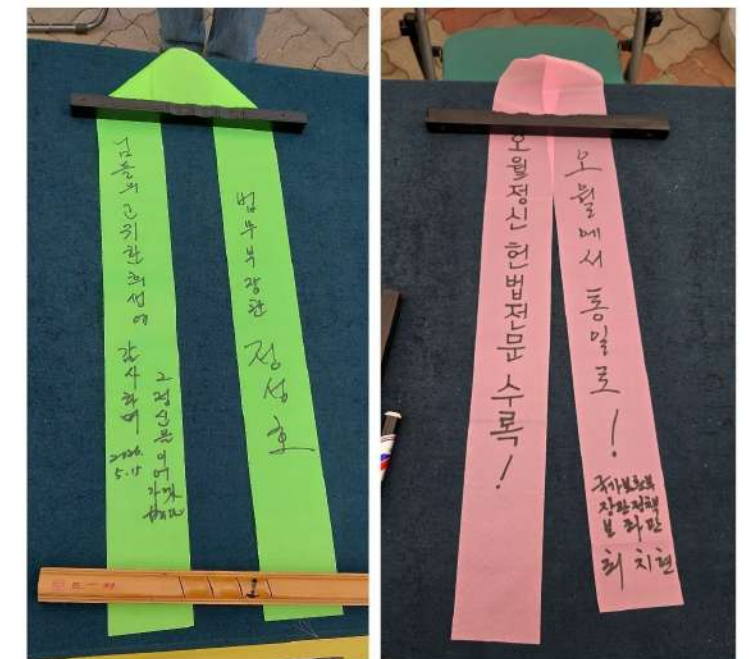


02

추모의 글 남기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추모의 글 남기기」 부스를 2026년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했다.

2006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한 대표적인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참여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을 비롯해 청소년, 각종 단체, 기관, 유·소년,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며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03

오월 기념품 팝업 운영

국립5·18민주묘지 내 매점이 5·18민주화운동 기념 기간을 맞아 참배객 편의 제공과 오월 정신 확산을 위한 기념품 팝업을 운영했다. 이번 팝업은 지역 공예 작가들이 협업한 ‘오월의 빛 프로젝트’ 결과물 중심으로 구성했다. 운영 기간에는 일상에서 5·18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팔찌, 키링, 브로치, 가방 등 오월 기념품과 생수, 음료, 아이스크림 중심으로 판매하며 방문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제공했다.

이번 ‘오월의 빛 프로젝트’는 단순한 판매를 넘어 오월의 기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며 매점이 참배객들이 잠시 머물며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인 동시에 유족들의 기억과 지역 작가들의 해석을 결합해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삶과 연결된 가치로 전달하고자 했다.



04

보훈사적지 돌봄 자원봉사자 활동

5·18사적지 제29호 故홍남순 변호사 가옥 해당 가옥은 홍 변호사가 광주에서 거주하며 업무와 생활을 했던 공간으로 5·18당시 구속자 석방 논의와 관련 문건 작성에 이뤄졌던 민주인권운동의 산실이다.

유신정권 때 민주화 투쟁의 호남지역 거점으로 사용되었고 5·18민중항쟁 국면에서는 시대적 역할을 담당하여 항쟁과 수습을 위한 대책위의 장소로도 이용될 만큼 ‘광주정신’의 모태이자 발원지라 할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이른바 ‘어른’으로 큰 획을 그은 그는



이후에도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지켰다.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인권 변호사로서 큰 족적을 남겼다.

2017년 5·18사적지로 지정된 이후 약 7년간 방치됐던 가옥은 2024년부터 매입 복원공사가 진행되어 2026년 3월에 개관했다.

현재 가옥 내부에는 홍 변호사의 생애와 활동을 조명하는 전시 콘텐츠, 생애 연표와 업무공간이 재현되었고, 유품 등이 전시되어있다.



05

제9회 5·18정신계승 그림그리기, 글쓰기 전국대회

- 2026. 6. 13.(토) 오전 9:30

5·18기념공원 대동광장에서 개최

-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오월 정신 전국화에 기여
- 시대정신 반영된 작품 다수 출품,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기여



06

업무협약(MOU)



- 2026. 2. 10. 여성가족재단



- 2026. 6. 12. 굿플란트치과의원



- 2026. 6. 22. 광주디자인진흥원

의료 지원부터 지역 연계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관들과 협력하여 회원님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가족의 자부심을 높이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07

유족회원 방문

서계화 회원, 양덕순 회원, 주이순 회원





2026.4.28.(화)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부마항쟁 및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 2차가 개최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당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5·18 관련 단체 관계자, 광주·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개헌 촉구 의지를 밝히기 위해 삭발식을 진행하며 국민적 관심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단순한 문구 추가가 아니라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약속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헌법에 새기는 역사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이자 국민 주권과 저항 정신의 상징”이라며, 국회가 개헌 논의 과정에서 두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5월 4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 재단)는 5월 18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하여 스타벅스와 신세계그룹이 5·18의 역사적 아픔을 모독했다며 정용진 회장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 5.18._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 5.19._김수환 신세계그룹 부사장 사과 방문에 거절, 정용진 회장 사과문 발표
- 5.22._5월 단체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 앞 정용진 회장 사퇴 촉구 침묵 시위
- 5.26._정용진 회장 사과 기자회견
- 5.26._5월 단체 정회장 사과에 강한 유감 표명 기자회견
- 5.28._5월 단체 정용진 신세계 회장 5.18특별법 위반 고소
- 5.29._국민연금, 스타벅스에 주주권 행사 촉구 공문 발송
- 6.1._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항의서한 발송
- 6.7._스타벅스 美본사, 5.18단체 항의 서한에 회신 (공식 사과의 뜻 전함)
- 6.15._신세계그룹 임직원 등 역사인식 교육하겠다 발표
- 6.16._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사안 관련 추가 설명 및 글로벌 본사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요청
- 6.17._신세계그룹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직원들 역사인식,사회감수성 교육
- 6.22._스타벅스 코리아 매장 파트너 역사인식,사회감수성 교육

世界の教科書
シリーズ49

光州広域市教育庁、5・18記念財団 企画
武井一 訳
金鉉煥(キム・ヒョンソク/김현석) 監訳

光州5・18民主化 運動を学ぶ

韓国における
歴史教育の実践



5·18민주화운동을 배우다(일본어판 교과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고등학생용 교과서가 일본어로 번역·출간돼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사건이 일본 사회에 본격적으로 소개됐다.

2021년 5·18기념재단과 광주교육청이 공동 발간한 교과서를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일본 출판사를 통해 일반 독자들에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교양서 형태로 출간됐다.

이번 출판은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교과서로 해외에서 정식 출간한 첫 사례이다. 도쿄의 한 고등학교 윤리 교사가 광주를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한국 민주주의와 5·18정신의 국제적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화 운동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5·18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이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된 가운데,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거행됐다. 기념식에서는 고(故)윤상원 열사의 조카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태극기를 게양하고, 5월 3단체장이 현장선언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옛 전남도청의 K-민주주의 성지 조성, 5·18민주유공자 직권등록제도 추진을 약속했으며, 특별공연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함께 사는 세상"

5·18 정신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드시 반를깁습니다.
2022. 5. 18.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귀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국가폭력의 짙은 상흔을 딛고 상생과 통합의 정신으로 자란 마흔여섯 번째 맞이하는 오월입니다.

46년 전, 신군부 세력은 독재의 군홧발로 민주화의 봄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민을 지키라고 우리 국민이 준 총칼로 주권자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잔혹한 만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실을 틀어막던 무도한 독재 정권 때문에, 수많은 희생자들은 눈을 감지 못했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통한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칙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을 찾아 고개를 드는 봄꽃들처럼,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광주의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감추려 할수록 진실은 더욱 선명해졌고, 숨기려 할수록 오월 정신은 더 넓게 더 멀리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월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수많은 양심들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의 부름에 응답했고 먼저 떠난 이들이 절망 앞에 선 현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분연히 펼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오월의 광주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국민들도 무장한 계엄군들을 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1980년 5월, 불의한 권력이 철수했던 그 찰나의 공간에서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12월,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졌던 오



월 민주 영령들의 고귀한 넋 앞에 머리 숙여 무한한 존경과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마르지 않은 눈물로 시대의 등불을 밝혀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혹한 폭력 앞에서도 끝내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5·18 정신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번영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굴곡진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숭고한 정신과 그 희생,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월 3일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오월의 질문이었습니다.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오직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실천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한 80년 광주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낼 수 있도록, 국민 주권 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할 것입니다.

오월 영령과 국민 여러분 앞에, 이를 위한 세 가지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9혁명과 부마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은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堂堂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것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을 넘어, 대한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도 당부드립니다.

둘째, 오늘 정식 개관하는 이곳 전남도청을 세계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전남도청은 불법적 국가폭력에 맞선 최후의 시민 항쟁지였습니다. 벽면 곳곳에 새겨진 총탄의 흔적들이 그날의 참혹함과 시민군의 담대한 용기를 말없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오월의 광주는 이제 세계시민이 함께 기억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에 오롯이 새겨진 희생과 연대의 정신이 대한민국 공화정의 자부심이자 미래 세대의 가치로 계승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단 한 분의 희생도 놓치지 않도록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들렀던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故 양창근 열사가 잠들어 계셨습니다.

짓밟힌 조국의 정의에 누구보다 아파했을 그 오월의 소년은, 등록신청을 대신할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도 5·18 민주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불굴의 투지로 민주주의와 조국을 지켜낸 분들이 단 한 명도 외롭게 남겨지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장 잠재력의 약화와 불평등 심화, 국제질서의 격변, 지방소멸 등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격랑의 파고 한복판을 지나고 있지만, 저는 광주가 걸어온 그간의 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봅니다.

총칼을 앞세운 독재 권력의 잔인한 폭압 속에서도 80년 오월 광주는 함께 사는 기쁨을 나누었고, 금남로에는 사랑과 연대의 물결이 출렁거리지 않았습니까.

외로움의 한복판 속에서도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고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서로를 부축하며, 마지막 온기를 모아 희망의

씨앗을 틔워냈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어 낸 공존과 배려, 평화의 광장에서 광주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빛나는 5·18정신이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길로 이끌었고, 이제 광주와 전남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함께 맞잡은 손이 상생과 공존의 새로운 이정표로 우뚝 서고, 균형발전이라는 희망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갈 것으로 믿습니다.



현 장 선 언

1980년 대한민국은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엄혹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오월의 광주는 위대한 시민의식을,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철저히 왜곡·은폐되었고 오랜 시간 폭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결코 진실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1988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수립되어 은폐되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5·18민주화운동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민주, 인권의 상징으로 인정받아 2011년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2024년 광주의 진실을 담은 소설 「소년이 온다」를 집필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있을 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기는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

하고 내란을 도모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오월을 기억했고, 오월 정신은 빛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국가 폭력에 맞서 끝까지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낸 시민들의 연대와 희생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듯’ 오월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 쉬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된 정부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계승하고, 헌정질서를 확고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18최후항쟁지 '옛 전남도청'개관

2026년 5월 18일(월), 5·18민주항쟁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이 복원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정식 개관했다.

옛 전남도청 본관과 경찰국 본관 등 주요 공간에서는 5·18항쟁의 전개 과정과 당시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본관은 열흘간 이어진 항쟁의 역사를 담은 핵심 전시 공간



으로 조성되었으며, 상무관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46년 전, 계엄군에 맞서 마지막 순간까지 도청을 지켰던 시민군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를 기억하며, 광주가 지켜 온 민주주의의 가치와 오월 정신이 세대를 넘어 미래로 이어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5월 14일 개봉한 이 영화는 송동운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개봉에 앞서 2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사회를 개최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영화는 1980년 5월 18일 광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소설가 '미수'가 자신의 출생 당일 행방불명된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담고 있다. 46년 동안 진실을 품고 살아온 어머니와 딸, 그리고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전직 공수부대원의 삶이 교차하며, 5·18민주화운동이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역사임을 깊이 있게 보여준다.

특히 영화의 OST를 부른 가수 완이화는 미얀마 난민 출신으로, 자신의 고향인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과 영화 속 이야기가 맞닿아 있어 더욱 깊이 공감했다며 그는 이 노래가 아픔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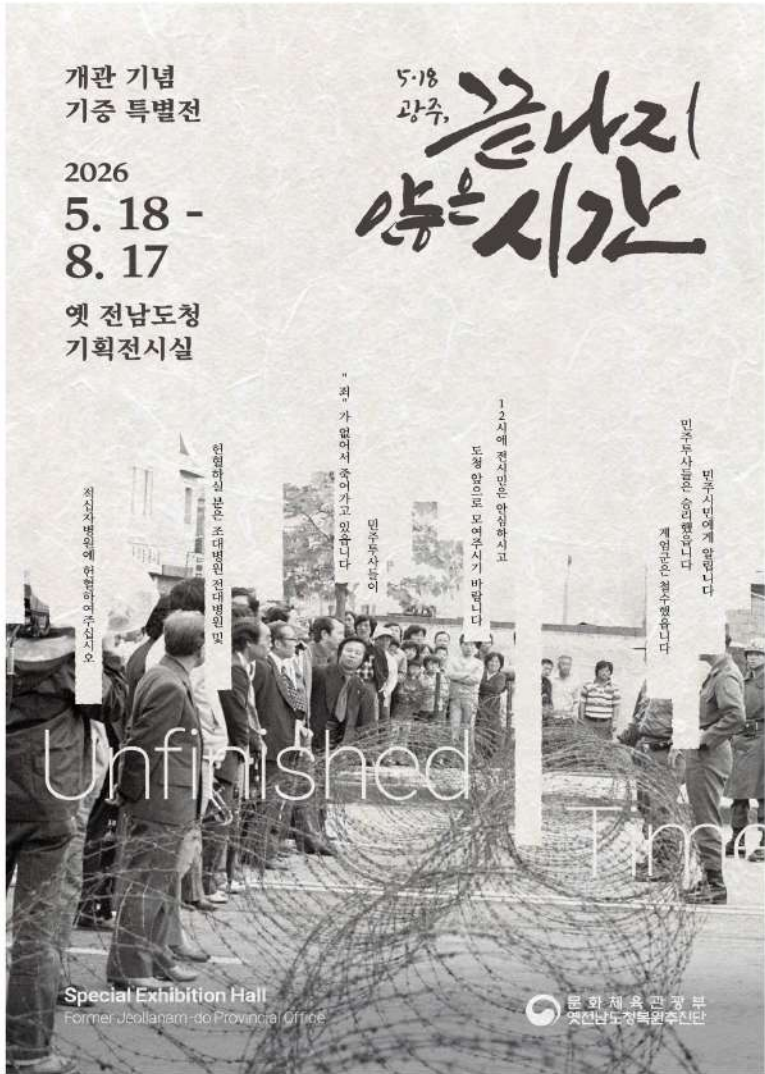
이 작품은 개인의 가족사를 통해 5·18의 진실과 상처를 되짚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의미 있는 영화로 평가받고 있다.



옛 전남도청 개관 기념 기증 특별전시 '5·18광주 끝나지 않은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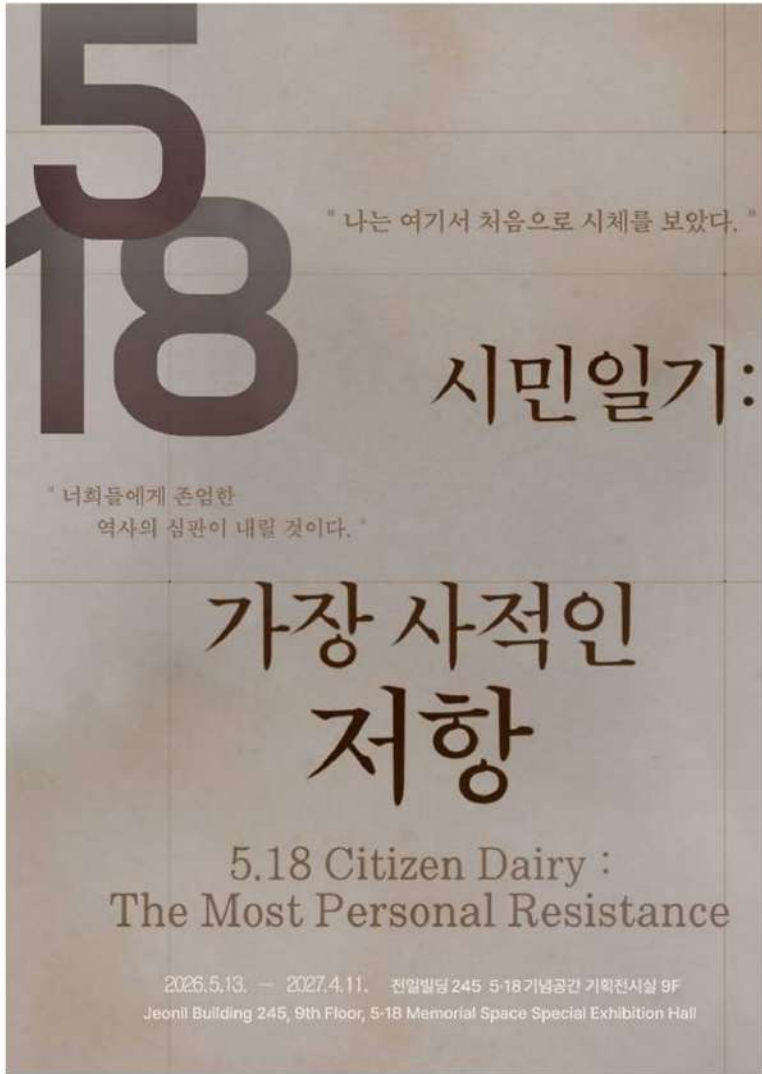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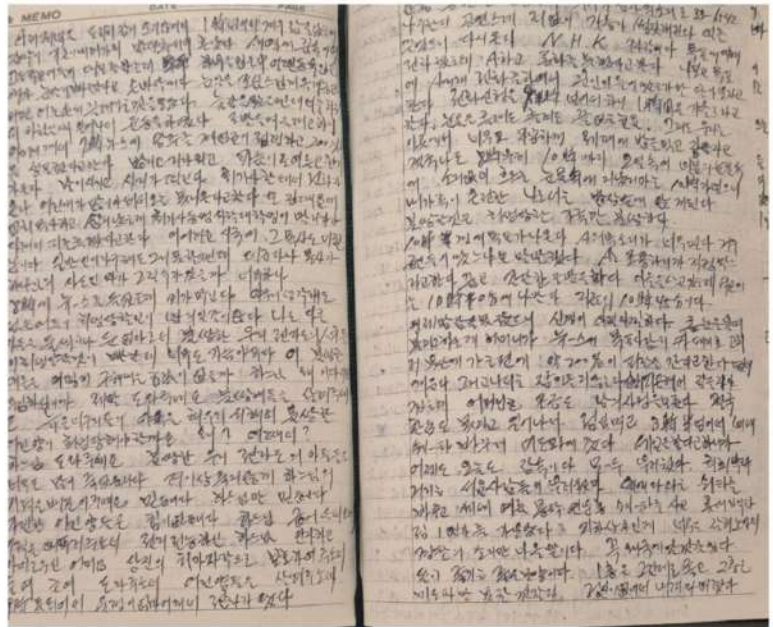
옛 전남도청 개관 기념 기증 특별전시「5·18광주, 끝나지 않은 시간」은 복원 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자료와 기록물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복원 과정의 의미와 5·18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전시기간 : 5월 18일(월)~8월 17일(월)
- 관람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 장소 : 옛 전남도청별관 기획전시실(도경찰국 민원실)



평범한 시민들이 기록한 기획전시 '5·18시민일기 : 가장 사적인 저항'
언론의 검열과 고립의 암흑 속에서 평범한 주부, 직장인, 대학생, 초등학생 등이 각자의 입장에서 남긴 일기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이 폭력에 맞서 가장 인간적인, 가장 강력한 저항의 증거가 됐는지 조명된다.

- 기간 : 2026.5.13.~2027.4.11.
- 시간 : 10:00~19:00
- 장소 : 전일빌딩245 5·18기념공간 기획전시실(9층)





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전시 '광주 5·18 도시 정체성과 민주주의'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획전 '광주 5·18: 도시 정체성과 민주주의'는 지금도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국가폭력 앞에서 시민은 어떻게 연대했는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전시다.

총 92점의 사진과 6편의 영상은 '시위-진압-항쟁-저항-학살-애도-사진가들' 등 7개 주제로 구성되었다. '시위와 진압'은 민주화를 요구한 시민들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을 보여주고, '항쟁과 저항'은 총칼 앞에서도 서로를 지키며 연대한 시민 공동체의 힘을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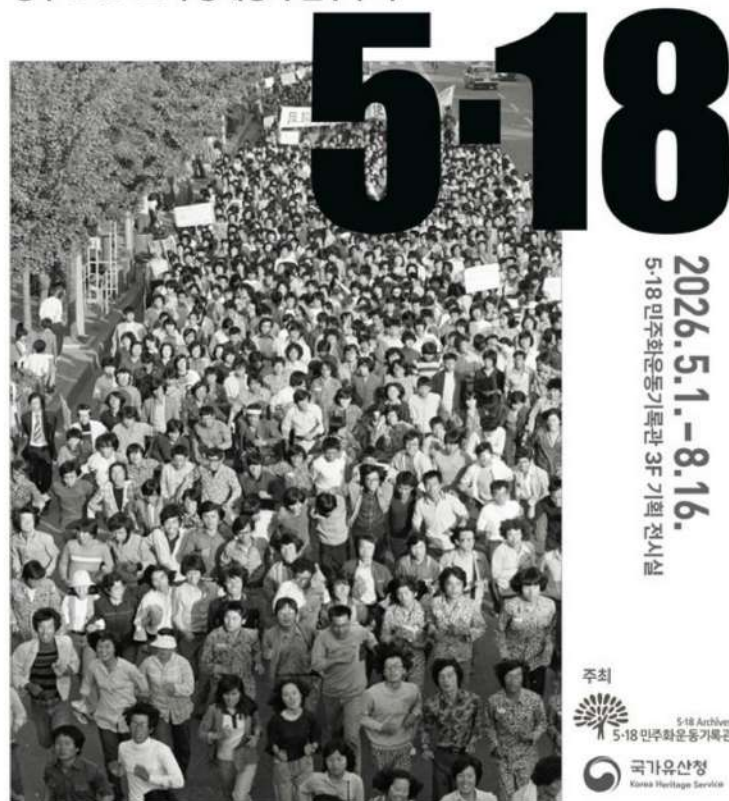
'학살과 애도'에서는 국가폭력의 참상과 희생자를 기억하려는 노력을 담아 민주주의의 기반이 기억에 있음을 전한다. 마지막 '사진가들' 섹션은 현장을 기록한 기자들의 사진이 진실을 지키기 위한 저항의 기록이었음을 보여주며 깊은 울림을 남긴다.

- 기간 : 2026.5.13.~2026.8.16.
- 장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

GWANGJU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념전

광주 5·18: 도시 정체성과 민주주의 1980년 5월 한국 민주항쟁 사진 아카이브



2026.5.1.-8.16.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F 기획전시실

주최
5·18 Archives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국가유산청
Korea Heritage Service

추모의 글 남기기 봉사활동 소감문

전국대학교 교육대학원생 : 고은애

안녕하세요. 5·18민주화운동 추모 리본 글쓰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고은애입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봉사하러 처음 방문했을 때, 입구에 걸려 있던 수많은 추모 리본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 리본들은 누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달았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찾아주신 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 직접 작성한 것이었고, 5·18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진심이 담겨 있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글을 적고 리본을 묶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책임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추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찾아와 5·18을 추모하시던 분들, 자전거 여행 중 5·18을 기억하기 위해 찾아주신 3대 가족,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정성스럽게 적던 어린아이들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5·18의 의미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짧은 문장 속에는 감사와 존경, 그리고 다시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둘러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화를 준비해 오거나 묘역을 천천히 돌아보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모습에서 방문하신 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5·18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이어가야 할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 쉬는 시간에 묘역을 돌아보고 다양한 추모 글을 읽으며 5·18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부터 9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에 감사함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역사가 실제 희생자들의 이야기와 추모의 마음을 통해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상 역시 수많은 희생 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한 마음으로 참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생각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방문하신 분들에게 추모 메시지 작성을 부탁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역사 속 아픔을 기억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민주화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자녀가 그 의미를 이해하며 추모 리본에 글을 적는 모습을 보면서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역사에 공감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교육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를 넘어,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제가 한 일은 작은 도움이었지만,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다양한 추모의 순간에 함께하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경험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 기부금안내

민주·인권·평화를 바탕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K-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하겠습니다.

기억과 추모 사업

- 오월추모 지원 사업
- 민주·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사업

교육·문화 사업

- 민주·인권·평화 향상을 위한 문화콘텐츠 사업
-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사업

사회공헌 사업

- 미래 인재 양상을 위한 장학사업
- 사회복지 사업
- 시민과 함께하는 보훈사적지 교육 플로깅 사업

“기억의 동행자가 되어 주세요”

희생의 기억을 이어가고, 진실의 역사를 지켜가는 길에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큰 힘이 됩니다,

기부금 계좌 농협 301-0363-8658-41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원가입 안내

- ▶ **회원가입 자격**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희생자 직계 가족증명, 없을 경우 지방보훈청에서 발급)
- ▶ **가입신청 서류**
 - 회원 등록 신청서
(서식-유족회 홈페이지, 국립5·18민주묘지 매점 비치)
- ▶ **회원입회서 제출**
 - 유족회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신청 안내

- 1 대상자 사망 시 가까운 보훈청으로 연락
· 영구용 태극기, 대통령 명의 근조기 수령
 - 2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ncms.go.kr)신청
· 본인 인증 후 안장신청 클릭 → 묘지 선택
· 신청 후 안장대상 여부 회신(휴대폰 문자)
 - 3 안장식 일정 협의 및 구비서류 준비
· 사망진단서 1부 또는 화장증명, 가족관계증명 1부
 - 4 합의된 일자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 구비서류 1부, 고인 반명함판(3×4cm)사진 1매
* 유골함 : 규격유골함(국가무료제공)
- ▶ **배우자 합장**
- 유공자가 국립묘지 안장된 이후 가능
 -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 사설묘지 등에 우선 안장 후 합장 신청
 -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 생전 확인 : 만 74세 이상 확인 가능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062-268-0518
국가보훈부 1577-0606 / 062-975-6500

※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국가보훈부 검색 → ② 나만의 예우 클릭 → ③ 대상구분별 지원선택 → ④ 알고 싶은 사항 클릭 조회

1:1 보훈 상담 서비스 1577-0606

유족회원 보훈제도

- ▶ **5·18민주유공자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 ▶ **교육 지원(생활수준 등급 이하)**
 - 본인·유족·자녀에 대한 중·고·대학교 수업료 면제
 - 대학별 보훈대상자 입학 특례전형 응시
- ▶ **취업 지원**
 - 원자녀 3인(본인·배우자, 부모는 제외)에 대하여 고용명령 및 가점에 의한 취업지원
 - 채용 시 가점 10% 또는 5%(시험공고문 확인)
- ▶ **의료 지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급-14급) 국비 진료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급-14급)의 가족·유족 보훈병원 본인 부담 60% 감면
 -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50% 감면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가족의 본인부담금 30% 감면 진료
- ▶ **복지 지원**
 - 보훈재가복지서비스(65세 이상),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필요로 보훈병원 입소(보훈병원 신청), 복지타운 입소 등 단, 대상 여부를 확인
- ▶ **주택 지원**
 - 아파트 특별공급(분양·임대) 신청
- ▶ **대부 지원**
 - 주택 및 농토 구입, 사업, 생활 안정 대부 단, 생활 등급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확인
- ▶ **기타 지원**
 - 고궁, 공원 등 이용보호 대상 할인 등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 발생시 재해위로금 지급(지급기준 해당시)
 - 보훈요양원 및 협약 콘도 저렴하게 이용
 - 개인택시면허신청용 증명서 발급(유공자 1인만 해당)
 - 증명발급 수수료 등 면제(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발생경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취해진 계엄군의 광주·전남지역 무력진압과 관련,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광주시민, 전남도민과 학생들이 부당한 국가권력에 항거한 반독재 민주화 운동

5·18민주화운동 경과

1980. 0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1980. 05. 18. 국가 권력을 강제한 신군부의 쿠데타에 맞서 학생들이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신군부 반란세력이 동원한 군대와 충돌, 유혈진압 시작
1980. 05. 20. 차량시위를 계기로, 광주시민들의 적극적 저항
1980. 05. 21. 신군부 반란세력이 동원한 군대가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 감행, 이후 광주 시내에서 퇴각하여 광주를 외부로부터 고립시키는 작전으로 변경
1980. 05. 21.~27. 시민학생투쟁위원회의 시민군 조직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 전개
1980. 05. 27. 신군부 반란세력의 무력 진압 강행, 광주시민 해산
1994. 05. 14.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 계승 국민위원회가 광주 학살 책임자 35명을 서울지검에 고소, 법정 투쟁 시작
1995. 12. 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1997. 04. 17. 5·18관련 책임자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등의 죄목으로 단죄
1997. 05. 09. 5·18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2002. 01. 26.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現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1. 05. 2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2018. 03. 2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연혁

1980. 05. 31. 5·18광주의거유족회 창립
2004. 04. 03.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창립
2022. 05. 12.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창립

발행일 2026년 8월 1일
발행인 양재혁
발행처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전남광주특별시 서구 내방로 152(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內
전화 062)383-5180
대표메일 5180family@naver.com
홈페이지 www.518민주유공자유족회.kr

